

文-安 박빙 경합에 유세전 뜨거웠다

文·安 광주·전남 3차례씩 방문 호남 민심잡기 '올인'

민주 국회의원 총동원... 국민 박지원 등 지도부 상주 맞붙

'5·9 장미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유세전은 어느 지역보다 뜨거웠다. 그동안 야당 후보가 결정되면 '물표'를 쫓던 역대 대선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놓고 호남 민심이 저울질을 하면서 양 당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졌다.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선거운동이 끝나는 9일 0시까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각각 3차례씩 직접 광주와 전남을 찾아 총력 유세전을 펼치며 호남 민심 잡기에 사실상 '올인'했다.

◇더불어민주당=광주·전남 선거구에 현역 의원이 이개호 의원 밖에 없는 민주

당은 선거운동 기간 현역 국회의원들을 광주·전남에 집중 투입했다. 박영선 상임선대위원장이 광주를 10차례 방문하고, 전해철 선대위 조직특보단장과 표창원·조승연·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호남에 연고가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국회의원들이 선거기간 중 대거 투입돼 총력전을 펼쳤다. 호남에 다녀간 국회의원 숫자만 최소 50에서 최대 60명 정도로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 결과 선거 초반부터 호남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후보의 3차례 광주 유세에는 총 4만 5000여명의 청중이 모인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또한, 광주지역 9대의 유세차량이 매일 광주 전역을 돌며 각각 7차례 이상씩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를 감안하면 22일 간의 선거운동기간 중 총 1400여 차례 유세를

벌였다.

특히 민주당 광주시당은 선거운동 기간 문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년층 공략을 위해 광주지역 등록 경로당 1263곳을 모두 방문했다. 이후 지역별 여론을 취합해 500곳 이상의 경로당을 추가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광주와 전남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풍(安鳳·안철수 바람)과 지난해 4·13 총선에서 '녹색돌풍'의 진원지였던 만큼 국민의당도 사활을 걸고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안철수 후보는 광주를 3차례, 전남을 2차례 찾아 총력 유세를 열었고, 선거 막판 '걸어서 국민속으로' 유세 과정에서도 광주를 찾아 바깥민심을 훑는 등 호남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안 후보의 '뚜벅이 유세' 영상은 인터넷에서 큰 호응을 불러 조회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안 후보측은 밝혔다. 페이스북도 댓글 수(게시물이 노출된 사용자 수)도 수백만 건에 이르러 특별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력을 총동원한 유세전도 치열했다.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실상 광주·전남지역 유세전을 진두지휘하며 민주당 유세에 맞불을 냈다. 박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날부터 대부분 시간을 광주·전남지역에서 총력 유세전을 활용하며 '호남 홀대론'과 '대북 송금 특검' 등을 강조하며 문 후보 때리기에 중점을 뒀다.

여기에 광주지역은 권은희 광주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 등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세해 유세전을 이끌었고, 전남은 원내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황주홍·정인화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광주지역의 경우 유세차량 총 9대가 골목 구석 구석을 돌며 유세를 벌였고, 차량 1대당 매일 50여명의 연설원이 투입됐다. 전남은 총 24대의 유세차량이 곳곳을 돌았고, 하루 연설원이 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거리 유세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광주 선대위는 8일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을 위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안철수의 국민캠프 광주선대위가 8일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선택, 안철수가 이깁니다'라는 구호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라 위기 극복할 힘 모아달라” “미래 위한 변화 선택해달라”

민주-국민의당 광주시당 선대위, 5·18광장서 마지막 지지 호소

제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광주·전남 표심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촛불로 만들어 주신 대통령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면서 “이제 나라를 위한 절망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힘을 모아달라” 호소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이 부활하고 있다”면서 “광주가 제일 먼저 심판해 주셔야 한다. 문재인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의 명령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정의당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바꾸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표를 막고 문재인 후보가 압도

적으로 득표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자”며 “내일 하루 시민 여러분이 투표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선대위도 이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보여주시민 광주시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 애정어린 질책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광주에서 시작된 녹색정치혁명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이 바뀌고 있고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며 “그 중심

에 당당히 광주가 자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 그동안 참아왔던 숨은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광주와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양 극단의 정치세력 대결이 그동안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되새겨야 하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당은 이날도 광주 시내 주요 지점 곳곳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투표운동이 종료되는 8일 자정부터는 전화와 SNS 등을 통한 투표참여 독려운동에 나선다.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화정역 1호선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나주혁신 빛가람 로데오 포장마차 사업주 모집 안내

- ◆ **사업지** : 나주시 빛가람동 26번지 상업 6블럭 로데오 거리 일원
- ◆ **자격** : 소자본으로 요식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 **모집업종**
 -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가공류 : 튀김/ 오리고기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해물류 : 회, 생선구이, 조개구이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주류 : 수제맥주, 와인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분식류 : 제과,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동남아음식 : 베트남, 일본, 중국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 **유망 프랜차이즈** 입점 불가
- ◆ **점포수** : 29점포
- ◆ **입대조건**
 - 보증금 : 1,000만원
 - 월세 : 매출에 따른 수수료 매장 or 월 고정 임대료 중 선택 가능
- ◆ **입점혜택**
 - 인테리어 비용의 최소화
 - 주 2회 거리공연 (기념일 대규모 행사)
 - 연간 배달주문 플랫폼 운영 (18:00~22:00)
 - 지속적인 광고 홍보 / TV 및 라디오 광고 예정
 - 사장님은 맛과 서비스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상의 영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유흥의 중심”
빛가람동 상업6블럭 로데오거리의
“빛가람 로데오 포차”와 함께 할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오픈 예정일 : **2017년 5월**
-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인점 문의 : **061)333-5001**
나주시 배넛1길 26-1 ING타워 101호

광주시, 송암산단에 문화콘텐츠밸리 조성

첨단실감콘텐츠클러스터 추진 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 공간

광주의 대표적인 노후 산단인 송암산단 단지가 4차 산업혁명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40년이 경과해 낙후된 송암산단 단지가 문화콘텐츠밸리로 조성돼 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곳에 1단계 CGI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 2단계로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다. 또, 3단계로 송암산단 전체를 ICT와 문화콘텐츠산업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경제와 일자리 성장'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은 8일 오후 남구 송하동에 위치한 CGI센터를 방문해 문화콘텐츠밸리 추진현황을 공유

하고 문화콘텐츠밸리 육성 비전을 밝혔다. 또,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유관 기관은 ▲첨단실감콘텐츠클러스터 추진 현황 ▲송암 문화콘텐츠밸리 조성 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등 협력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산업의 기획 역량 강화, 각 대학별 맞춤형 협력 방안 강구, 게임산업 인력 양성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문화분야는 유기적으로 소통 연결돼서 기획하는 시스템이 될 때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각 대학과 기관 간 밀도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 3대 밸리 가운데 하나인 문화콘텐츠밸리 조성이 차기 정부 지역발전 공약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AI 25개 방역지역 이동 제한 어제 모두 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전남지역 25개 방역지역의 이동 제한 조치가 8일자로 모두 해제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장흥군 용산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닭·오리와 축사 등의 환경 시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남아 있던 장흥과 곡성의 3개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로써 AI 발생으로 설정했던 25개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전남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5월 말까지 시·군·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함께 27개의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오리 농가에 대해 입식 전 철저한 방역 점검과 빈 축사 환경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승인하는 '시군 입식 승인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전남·군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5월 말까지 도내 전체 오리농장 일제 검사를 추진하는 등 AI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 대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 16일 해남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10개 시·군에서 3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16 농가의 가금류 213만 8000 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국제수목화 교류전' 北 작가 참여 어려울 듯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목포, 진도 일원에서 열리는 '2017 국제수목화 교류전'에 북한 작가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전남도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원 등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을 포함한 해외의 수목화가 10개국 493명의 명단을 작성해 참여 여부를 접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제수목화비엔날레 자문단은 14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전국 유명인사도 포함시킨 전남도는 이들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 408명, 일본 67명, 프랑스 6명, 타이완 4명, 미국·영국 2명 등 10개국 493명의 수목화가 명단을 작성했다.

이들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참여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고, 8월까지 작품 운송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계획이다.

'2017 국제수목화 교류전'은 내년에 열린 국제수목화 비엔날레의 사전행사격으로, 수목화의 과거(靜)·현재(中)·미래(動) 콘셉트로 1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여작가는 5개국 200명(본전시 90명, 작가 연합전 110명)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오는 16일 행사대행 운영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시장 구성, 국제학술회의 개최, 프로그램 운영, 홍보 계획, 전시기획 인력(안), 참여 작가 풀 등을 점검한다.